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성령 안에서 완성되는 사명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되새기며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날입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 그 죽음에 앞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남긴 말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며, 곧 하늘에 오르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 때까지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맡기며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 곧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는 성경의 마지막 장면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 마지막 순간들에 표현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루카 24, 49)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19-20)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 손을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마르 16, 15-18)

마태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메시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도움을 주시는 분,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이들 누구에게나 은총의 선물이 주어 집니다. 또한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도 함께 주어 집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은 모든 민족들에게 차별이 없는 마음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 뿐 아니라 자연 만물, 곧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이 선교의 사명은 하느님의 도우심, 곧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완성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이기적인 인간적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그 신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망동 본당 임준기 다미아노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말씀을 받들어 모든 민족들이 복음화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민족과 복음 선포를 위해 세상 곳곳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39번 ‘하나되게 하소서’

본기도

†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2장 1절-5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 것이라고 전합니다.

묵 상 : 우리가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나라에 서는 서로 다투는 일도 싸우는 일도 없이, 평화의 노래 소리만 가득 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또는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2독서 : 로마서 10장 9절-18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묵 상 :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은 전교에 대한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발을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8장 16절-20절

강 론 : ‘성령 안에서 완성되는 사명’(1-2쪽)

예물준비성가 : 513번 ‘면병과 포도주’

영성체성가 : 151번 ‘주여 임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복음화는 남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미는 데서 시작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침묵>

남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나에게 다가와 머리 숙이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에게 다가가
내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는 것,
그렇게 사람을 열병에서 낮게 해주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침묵>

복음화를 사명으로 하는 교회는
스스로 자신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야 합니다.
복음화는
세상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여는 작업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느님 나라가 먼저 와 있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50번 ‘만방에 나아가서’

※ 공소사목 성금

신효원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69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교구 말씀축제

- 일시 : 10월 22일(주일) 09: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내용 : 성경 암송대회, 성경 장기자랑 및 기타 작품 전시
- 참가비 : 1인 12,000원(도시락, 생수 제공 및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교구 제단체장 모임

- 일시 : 10월 28일(토) 15:00 ~ 19:00
- 장소 : 교구청사(3층 대회의실)
- 대상 : 교구 제단체장 및 간부
- 준비물 : 2017년 활동보고 및 결산서, 2018년 활동계획 및 예산서, 미사 준비

■ 예비신학생 체육대회

- 일시 : 10월 29일(주일) 12:00
- 장소 : 함창 상지여자중고등학교

■ 교리교사의 날

- 일시 : 11월 5일(주일) 10:00 -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초·중·고등부 교리교사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간편한 복장, 운동화
- 신청 : 10월 30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참가비 : 1인 10,000원

■ 문경 엠마오 기쁨 피정의 집 축복미사

- 일시 : 11월 17일(금) 11:00
- 장소 : 문경읍 지곡리 태극기마을 끝동네 (문경성당에서 5분거리)

■ 제4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11월 18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11월 16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안동가톨릭문인회 시화전

- 일시 : 10월 21일(토) ~ 29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10월 23일 20:30
- 장소 : 예천 본당
- 강사 : 박기서 요한

■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을 위한 본당 사료 수집 요청

- 목적 : 역사자료 보존 및 활용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보관하는 오래된 사진, 책, 성물 등
- 마감 : 10월 30일(월)까지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 생명환경연대 생태기행

- 일시 : 11월 4일(토)
- 장소 : 지리산 칠선계곡 추성리-선녀탕-비선담 왕복 걷기(4km:3시간)
※ 벽송사 관람-지리산 조망공원-지안재 경유 복귀
- 대상 :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회원 및 생명과 환경에 관심 있는 신자 (지리산 칠선계곡 걷기는 3시간 이상 도보 가능한 자) 10월 말까지 선착순 120명
- 문의 : 안동 마명락 010-6300-1711
영주 김영모 010-2630-2206
문경 안장수 010-8361-2087
상주 윤병권 010-7488-7564
- 참가비 : 1인 10,000원(중식은 개인 준비)

■ 청년연합회 음악피정

- 일시 : 11월 4일(토) 15:00 ~ 5일(주일) 15:00
- 장소 : 화령성당 화북공소, 상주 솔솔 펜션
- 강사 : 생활성가 ‘하늘바라기’
- 참가비 : 1인 30,000원
- 문의 : 사목국(858-3114~5)

■ 가톨릭상지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1차 모집 : 9월 11일(월) ~ 9월 29일(금)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故 정일우 신부의 휴먼 다큐멘터리 <내친구 정일우> 개봉

- 모든 것을 초월해 사랑을 나누었던 파란 눈의 신부 김수환 추기경이 가장 신뢰했던 벗 가난한 이웃들의 곁을 지켰던 우리 모두의 친구 <내친구 정일우>가 10월 26일 개봉합니다.
- 문의 : 시네마달 02-337-2135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17년 전교 주일 담화
(2017년 10월 22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선교 사명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전교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선교 사명’에 관하여 새롭게 성찰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은 선의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복음의 변화시키는 힘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시는 ‘길’이십니다.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진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은혜로운 구원의 ‘때’를 역사 안에 현존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로 우리와 동시대 사람이 되시어, 그분을 믿음과 사랑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은,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사막들을 지나고 진리와 정의를 향한 굽주림과 목마름을 여러모로 경험함으로써 ‘계속적인 순례’를 재촉합니다. 교회는 선교 사명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위한 보잘것없는 도구이며 매개체임을 상기합니다.

젊은이는 선교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선포하신 기쁜 소식은 끊임없이 많은 젊은이를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용기와 열정으로 인간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자신의 범위와 안위를 넘어서려는 열망을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일깨우는 귀중한 수단입니다. 이 기구 안에서, 나날이 육성되는 심오한 선교 영성, 그리고 선교 의식과 열정을 증진하는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젊은이, 어른, 가정, 사제, 주교 그리고 남녀 수도자는 모든 사람 안에 선교 정신을 키워 주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전교회에서 장려하는 전교 주일은, 참으로 중대하고 절실한 복음화의 필요성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선교 정신으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삶의 증거를 보여 주며, 재화를 나눌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교 사명을 수행할 때에 복음화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에게서 영감을 얻도록 합시다. 그분은 성령께 이끌려, 겸손한 믿음 저 깊은 데서부터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 시대에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 깨닫고, 우리가 “예”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동정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6장
사목적 전망

오늘날 가정에 관한 복음 선포

207. 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약혼한 이들의 사랑의 길에 동행하는 것이 그 공동체 자체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주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혼인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소중한 자원입니다. 사랑과 상호 증여의 증진을 위한 참된 노력으로 그들은 교회 자체의 구조를 새롭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천하는 특별한 형태의 우정이 퍼져나가 그들이 속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우정과 형제애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혼인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 여러 합당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는 저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식별하여 젊은이들이 혼인성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교육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리 전체를 가르치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영혼을 만족시키고 채우는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내적으로 느끼고 음미하는 능력입니다.”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케리그마의 새로운 선포와 부부가 여생을 “큰 용기와 관대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앞서야 합니다. 혼인 준비는 그들이 최선의 마음가짐으로 혼인성사를 맞이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어느 정도 단단한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주는 혼인성사의 **입문**과 같은 것입니다.

208. 선교하는 가정, 약혼한 이들의 가정, 다양한 사목 자원을 통하여 친밀함과 증언의 동반으로 약혼한 이들의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마련되어 온 준비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혼한 이들을 위한 모임과 여기에 더해 젊은이들이 실제로 흥미를 느끼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대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바로 그 당사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을 그 주요 목적을 삼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혼인 거행 이전의 짧은 과정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이는 출생 때부터 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주는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알게 되고 온전하고 확고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혼인을 더 잘 준비하게 되는 이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인 혼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운 이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혼인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조건 없이 선택하여 그 결정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인한 부부들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목 활동은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의 혼인 생활을 준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중 신심의 사목적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발렌타인 성인의 축일을 생각해 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축일을 목자들의 창의력이 아닌 상업적으로 더 잘 이용합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주님, 묵밥 맛이 어땠어요?

조태영 세례자 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2016년 가을이었다. 봉사를 다시 시작한지 5개월 정도 된 어느 영주 장날이었다. 오 늘따라 영주장이 잘 서는지, 만남의집 식탁도 만원이었다. 평일에는 좌석이 몇 개 남 지만 장날은 거의 다 채워진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일찍 자리가 다 채워지고 딱 한 자리만 남았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판을 나르고 있는데 낯선 자매님 두 분이 동시에 들어와서 한 분은 앉고 한 분은 서서 남은 자리가 있는지 살피고 있었다. 식판을 들고 가서 미 리 앉은 자매님에게 건네주자, 자매님은 난처한 얼굴로 옆에 서 있는 자매님을 가리키 며 부탁을 했다. “아저씨요, 이 아지매는 지하고 한 동네 사는데요, 오늘 영주 장보러 같이 왔다가 여기서 점심을 준다기에 점심 얻어먹으러 왔니더. 이 아지매는 장애가 있 어서 혼자 가면 안 되니더. 우애든지 밥 한 그릇만 더 주이소!”라고 간청을 했다. 듣 고 보니 사정이 딱했다. “걱정 마이소! 자리가 나는대로 줄게요.”라고 시원스럽게 대 답을 하고 다른 분들에게 열심히 식판을 날랐다. 시간이 지나자 빈자리가 났다. 주방에 밥 한 그릇 더 달라고 주문을 했더니 오늘 배식은 끝이 났다는 것이다. 좌석 숫자만큼 밥이 나오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다.

정말 사정이 딱했다. 나에게 간절히 애원하는 그분들께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 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만남의 집 총책임자에게 사정이야 기를 하고 밥 한 그릇만 더 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을 했다.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하였다. “안돼요.”라고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이었다. 아주 많이 해본 대답이었다. 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한바탕 싸움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그럴만한 사정도 있을 것 같았다. 책임 자는 25년 동안 무보수로 한결같이 자기 집안 일 보다 더 소중하게 만남의 집을 위해 봉사해온 분이다.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오는 대로 밥을 주면 끝이 없다. 홀이나 주방 에 봉사 온 사람들도 시간이 되면 마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정한 본때를 보여 주어 야만 다음부터는 시간에 늦지 않게 빨리 올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내 마음 이 봄바람에 눈 녹듯이 풀렸다.

나는 장애가 있다는 자매님께로 가서 “오늘 밥이 다 떨어졌다네요.”라고 하면서 자 매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50m 거리에 있는 묵 집으로 데리고 갔다. 스마트폰 주머니에 비상금으로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둔 만 원을 꺼내 주인장에게 주면서 “이 아지매에게 묵밥 한 그릇 주소!”라고 했더니 “예예, 잘 모실게요.”라고 하면서 거스름 돈 4,000원을 건네주었다. 자매님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뒷정리를 하기 위해 만남의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한 없이 가벼웠다. 푸른 가을 하늘을 흘러가는 한 조각 흰 구름처럼 훨훨 날아 갈 것만 같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 인가? 생전 처음 보는 장애인 시골 아주머니에게, 오랫동안 사귀던 벗에게 하듯이 선 뜻 묵밥을 한 그릇 사주다니,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직자나 수도자도 아니며 자선 사업가도 아니다. 하여튼 그 이유는 모르지만 기분은 한 없이 좋다. 왜 이렇게 좋은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렵푹이나마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오늘 이 행위 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영성체를 할 때나, 성체조배를 할 때나, 주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성령 께서는 허기진 주님께 나로 하여금 묵밥 한 그릇을 대접하게 한 것이다.

나는 기쁨에 넘쳐 주님께 외쳤다. “주님, 오늘 묵밥 맛이 어땠어요, 맛이 있었나요?”